

광주FC, 대구·인천 상대 연승 잇고 잔류 굳힌다

K리그1 파이널라운드 18일 대구와의 경기 시작으로 5경기 남아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일본·중국 원정 경기도 소화...체력이 관건



광주FC의 '생존 싸움'이 18일 홈에서 시작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8일 '하나은행 K리그 1 2024'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첫 경기를 갖는다.

파이널A에 진출한 1-6위 팀과 파이널B에 포함된 7-12위 팀은 34라운드부터 최종 38라운드까지 팀별로 5경기씩 치른다.

파이널A에서는 우승과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이 펼쳐지고, 파이널B에서는 강등을 피하기 위한 '생존 싸움'이 전개된다.

앞선 33라운드까지 14승 1무 18패(승점 43)를 기록한 광주는 7위에 자리하면서 파이널B에서 남은 5경기를 소화한다.

8위 제주유나이티드와는 승점 2점 차, 9위 대구

FC와는 승점 5점 차, 10위 전북현대와는 승점 6점 차다. 11위에 자리하고 있는 대전하나시티즌과는 8점 차, 최하위인 인천유나이티드는 11점 차 밖에 있다.

앞선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3-1 승리로 3점을 더한 광주 이정호 감독은 자력 잔류를 위한 승수로 '2승'을 예상하고 있다.

유리한 고지에서 파이널라운드 일정을 시작하게 된 광주는 대구와의 홈경기 이후 27일에는 인천 안방으로 가 오후 4시 30분부터 35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11월 2일 오후 4시 30분에는 대전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3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37라운드는 11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와의 원정경기로 진행된다.

올 시즌 최종전이 파이널B 팀들의 운명이 가려지는 38라운드 경기는 11월 24일 오후 2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과의 대결로 펼쳐진다.

B그룹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광주는 홈에서 3경

기를 소화한다.

한편 우승 경쟁 중인 1위 울산HD(승점 61)와 2위 김천상무(승점 56)의 맞대결은 19일 오후 4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포항스틸러스와 울산의 '동해안 더비'는 27일 오후 2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진행된다.

5년 만에 파이널A에 오른 서울은 20일 오후 2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를 갖는다.

파이널A 그룹의 최종전은 11월 23일, 파이널B 그룹의 최종전은 11월 24일 열리며 오후 2시 일제히 경기가 시작된다.

한편 파이널B에서 잔류를 위한 싸움을 하게 된 광주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 스테이지 일정까지 동시에 소화하게 된다.

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문제로 22일 오후 7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이동해 조호르 다룰탁집(말레이시아)과 3차전을 갖는 광주는 11월 5일 오후 7시에는 비셀 고베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일본으로 간다.

리그 최종전이 끝난 뒤 3일 후인 11월 27일 오후 7시에는 상하이 선화(중국)와의 홈경기가 예정됐다. 이어 광주는 12월 3일 오후 9시 상하이 하이강과의 맞대결을 위해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18일 대구FC를 상대로 홈에서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20라운드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가브리엘과 빅토. <광주FC 제공>

'첫 도움' 광주FC 변준수, K리그1 33라운드 베스트 11

K리그2 전남 윤재석·류원우도

광주FC의 변준수가 K리그1 33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변준수는 지난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28분 허울의 선제골을 도왔다.

중원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변준수는 전방으로 패스를 했고, 이어 허울이 오른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다. 변준수는 도움에 앞서 위협적인 헤더를 선보이는 등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33라운드 MVP는 강원FC 이상현의 차이가 됐다.

이상현은 6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서 후반 교체 출장에 후반 40분과 후반 추가 시간에 멀티골을 넣으면서 강원 3-1 승리의 주역이 됐다.

베스트 매치는 6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전북현대의 경기가 선정됐다.

이날 대구는 전반 6분 세징야, 전반 35분 이탈로의 골로 전반을 2-0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전북이 후반 13분 이영재의 추격골, 후반 34분 안현범의 동점골, 후반 42분 문선민의 역전골로 승부를 뒤집었지만 대구가 후반 종료 직전 나온 에드가와 박



K리그1 33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된 광주FC 변준수(왼쪽부터), K리그2 34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전남드래곤즈의 윤재석과 류원우.

세진의 연속골로 4-3 승리를 거뒀다. 극적인 재역전을 누른 대구가 K리그1 33라운드 베스트 팀의 영예도 안았다.

K리그2 34라운드 MVP는 천안시티FC의 천안 모따에게 돌아갔다.

모따는 지난 5일 열린 경남FC와 홈경기에서 1골 2도움의 활약으로 천안의 3-1 승리를 만들었다. 모따는 퉁기라와 이지훈의 골도 도우면서 이날 천안이 기록한 세 골에 모두 역할을 했다.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성남FC와의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합작한 전남드래곤즈 윤재석(MF)과 류원우(GK)는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윤재석은 0-0으로 맞선 후반 48분 플라가의 헤더가 골대 맞고 나오자 다시 헤더로 연결해 '극장골'을 장식했다. 류원우는 성남이 날린 6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저지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배드민턴 안세영, 세계랭킹 1위 중국선수에게 내줘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1년 여 만에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에서 내려왔다.

안세영은 지난 8일 발표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10만337점을 기록, '라이벌' 천위페이(중국·10만1682)에게 밀려 여자단식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8월 1일 자 순위에서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뒤 자리를 지켜 온 안세영은 약 1년 2개월 만에 밀려났다.

대선배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한국 여자단식 선수로 세계랭킹 1위에 등극했던 안세영은 이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 올여름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안게임 이후 무릎 부상을 여파로 한동안 대회에 나서지 않았고, 복귀 이후에도 기복을 겪었다.

여기에 파리 올림픽 이후에도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랭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이 올림픽 이후 각종 대회에 나서지 않은 건 표면적으로는 부상 때문이었으나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 체제와 국가대표팀 운영을 비판한 '작심 발언'에 따른 파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이강인의 PSG, 한글날 기념 '한글 유니폼' 출시

축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이강인이 활약하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새로운 '한글 유니폼'을 내놨다.

<사진>

PSG는 9일 공식 소셜 미디어로 "한국의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이 들어간 한정판 키트를 출시한다"며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강인이 해당 유니폼을 든 모습도 함께 담겼다.

프랑스 프로축구의 명문 PSG는 지난해 7월 이강인을 영입한 뒤 이전에도 한글이 들어간 유니폼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직접 입고 경기에 뛰기도 했는데, 이번 유니폼은 한글날 의미를 살린 또 다른 디자인이다.

이강인은 물론 선수들의 이름이 '베틀나', '렘벨레' 등 한글로 표기됐으며, 등번호가 훈민정음 패턴으로 마감됐다. 숫자의 아랫부분이 호랑이 무늬로 연결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날 PSG는 별도의 피드로 "2024년 10월 9일, 제578돌을 맞은 한글날 PSG가 함께 기념하고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올리기도 했다.

이강인은 구단이 제작한 영상에 나와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7일 니스의 프랑스 리그1 원정 경기 이후 후반 교체로 출전했던 이강인은 요르단 암만에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팀에 합류, 10일 열리는 요르단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 준비



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10월 A매치엔 부상으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캡틴'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토트넘도 이날 소셜 미디어로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라고 글을 올려 한글날을 축하했다.

이번 A매치 기간 손흥민을 대신해 주장 역할을 할 수비수 김민재가 뛰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은 레로이 자네와 알렉산더 파블로비치가 '가나다', '여러분' 등 한국어어를 연습하는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한국 선수가 속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팬을 보유한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 등도 소셜 미디어에 한국어 축하 글을 게시했다. /연합뉴스

김민재, 'SON 없는 흥명보호' 주장 완장 찬다

요르단서 첫 완전체 훈련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빠진 흥명보호 국가대표팀에서 '수비의 핵'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주장 완장을 차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연전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흥명보호 감독은 이날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3, 4차전의 '임시 주장'으로 김민재를 임명하고, 8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처음으로 '완전체 훈련'을 진행했다.

국내파와 유럽파 등 총 26명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모여 흥 감독의 지시에 따라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이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이번 대표팀의 구심점은 김민재다.

어느덧 대표팀의 '중진'이 된 김민재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열리는 요르단과 3차전,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라크와 4차전을 주장으로 치른다.

1996년생 김민재는 A매치 65경기를 소화했다. 이번 대표팀에서 김민재보다 많은 A매치를 뛴 선수는 이재성(90경기), 김승규(알사바브·81경기), 황희찬(울버햄프턴·68경기) 뿐이다.

현역 시절 센터백으로 그라운드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흥명보호 감독이 세계적 수비수다운 기량을 갖췄고, 경험도 풍부한 '센터백 후배' 김민재를 택한 것이다.

김민재는 상대가 요르단인 만큼 특히 중요한 역

할을 할 걸로 보인다.

요르단은 지난 2월 아시안컵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워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이끈 우리나라에 0-2 완패의 아픔을 안긴 팀이다.

무사알타마리(몽펠리에), 아잔 알나야파트(알아라비)를 앞세운 공격진과 속도 경쟁에서 압도당한 클린스만호 수비진이 무너졌다. 우리나라 센터백 가운데 가장 발이 빠른 김민재는 경고 누적으로 당시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다. 요르단이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고수한다면 빠른 발과 판단력으로 후방의 뒷공간을 책임질 김민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김민재가 A대표팀에서 주장 완장을 찬 건 손흥민이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출전하지 않은 지난해 10월 튀니지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es)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